



# 소말릴란드 가축시장

소말리아에서 독립한 소말릴란드는 건조기후대에 위치해 농경이 어려운 탓에 목축이 주요 산업이다. 가축시장에선 건조한 기후에 강한 낙타나 염소가 주로 거래된다. 덩치 큰 낙타를 통제하기 위해 앞다리를 동여매고 거래를 마친 낙타 등엔 글씨를 써 표시한다. 시장 한쪽에서 사료용 건초를 팔고 환전상이 대기하고 있다. 염소를 산 주민은 승용차에 같이 태우고 집으로 간다. 접하기 힘든 소말릴란드 가축시장을 살펴봤다.

글 조보희 기자 · 사진 AFP=연합뉴스



↑ 소말릴란드 수도  
하르게이사의 가축시장



→ 시장 한쪽에서 염소젖을  
팔고 있는 상인



← 낙타 상인이 낙타를 통제하기 쉽도록  
앞다리를 묶고 있다.

→ 시장에서 산 염소를 승용차에 같이 태우고  
집으로 가는 주민들





낙타를 산 사람이 낙타 등에  
소유자를 표시하는 글씨를 쓰고 있다.



가축시장에 구경 나온 소녀들

>> Information

소말릴란드(Republic of Somaliland)는 1991년  
소말리아로부터 독립했지만, 국제사회로부터  
승인을 받지 못한 미승인국가이다.  
독자적으로 내전을 종식하고, 민주주의  
체제를 갖춘 실질적인 독립국이다. 수도는  
하르게이사(Hargeisa)이다.

